



수험번호

성명

페이지

1/1

제시문<가>는 인간복제에 대해 윤리적 입장의 고려를 중시한다. 1997년 복제 양 돌리의 사례를 제시하며 앞으로 인간 복제가 현실로 도래할 것을 제시하며 그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복제 기술로 태어난 아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 복제인간을 수단화할 가능성 등 여러가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 기술 뿐만아니라 윤리적 입장을 고려해야하고 인간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성찰할것을 요구한다.이어서 제시문<나>는 인간 복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인간 복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유용하게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인간 복제를 유용하게 사용하면 인류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유전자 복제술을 이용하여 난치병 치료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복제기술에 대해 우려하기 긍정적 기능에 대해 자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그러나 이러한 생명 복제 기술의 의학적 유용성만을 중시하는 입장은 윤리적인 입장을 경시해 인간을 경시하는 풍토를 만들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진정으로 바람직한 인간복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유용성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찰의 선행이 요구된다.

"할머니 저는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시리'의 대사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시리 같이 어린 아이가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당연히 모를 것이다. 어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왜 태어났는지 설명을 듣게되는 기회가 없었을 뿐더러 만약 있었다라도 어린아이가 이해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당연히 "괴물!"이라는 소소리를 들었을 때 시리는 당연히 내가 왜 괴물이야? 라는 반응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만약 시리가 자신이 불치병 치료 목적이라고 태어난 것을 알고 있었다면 시리의 반응은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듯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결코 침착하게 응대하지 못했을 것이다. 복제 사실을 알고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어린아이한테 "너는 이리스의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태어났어. 그래서 너는 이리스와 똑같이 태어났고 나중에 너를 이용할꺼야."라고 설명하는 것은 잔인하다. 또한 어린 아이에게 복제로 태어난 사실을 알려주고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복제는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 에는 너무 큰 일이고 힘든일이다. 따라서 '시리'의 반응은 아무렇지 않게 "나는 사람이야."라는 반응이 가장 적절한 시리의 대사다.